

표지사진 : 이정호(2차 108인)

어린이 공원을 배경으로, 단풍과
힘찬 나뭇가지가 아름다운 정원



CONTENTS Vol. 98 · 가을 | 2026

- | | | | |
|----|--|----|---|
| 02 | 청운동 사계 김여주
김부식의 감로사 | 18 | 우바이 살롱 이동춘
어머니를 위한 정자, 삼구정
효가 건축이 된 오백년의 기억 |
| 03 | 발행인 편지 정대련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래! | 20 | 불교와 여성 조민기
인현왕후와 김천 청암사
보광전 기도로 왕비로 복위하다 |
| 04 | 축하합니다 정대련
불교여성개발원, 不二賞으로 빛나다 | 23 | 만나고 싶은 스님 김영희
미타사 상덕 주지스님
보살 정신으로 자비복지 실천하다 |
| 06 | 함께 해 즐거웠어요 이정호
2026 새활용 공모전
낡은 조각조각이 새 것 되는 마술 | 26 | 불교와 문화 이예지
국화축제와 중앙절
때를 기다려 서리 뒤에 피는 꽃 |
| 10 | 다녀왔습니다 이지윤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나트랑 순례기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떠난 여행 | 28 |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이화선
지리산 선림사
결혼수 불두화 심은 평생 기도처 |
| 13 | 돌봄의 교육 고은자
가족지원센터의 '함께 키움 조부모돌봄나눔 사업'
감정코칭부터 디지털시대 양육법까지 | 30 | 개발원 소식 |
| 16 | 공부가 재미있어요 안선숙
시와 대화하고 희곡을 썼다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 33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 | 37 | 회원동정 |
| | | 39 | 재정 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2026년 통권 98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편집위원장 남혜경 편집위원 김영희, 윤효진, 이예지, 조민기, 최연지, 이지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김부식의 감로사

마침내 가을은 왔다!

무더위에 갇혀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던 올해의 여름도 그렇게 간다.

시간의, 계절의 소중함이 일깨워진다.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가을 앞에서

또 다른 반가움에 놀라면서 낯설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인간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송도 감로사에서 혜원스님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 題松都甘露寺次惠遠韻 —金富軾

속인들은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
올라서자 마음 금방 맑아지누나!
산 빛은 가을이라 한층 더 곱고
강 풍경은 밤인데도 되려 환하다
하얀 물새 높이 날아 사라져가고
돛배 한 척 가뿐하게 떠가고 있네
부끄럽다! 달팽이 빨같이 좁은 세상에
반평생 공명 찾아 헤매었으니!

俗客不到處 (속객부도처)
登臨意思清 (등임의사청)
山形秋更好 (산형추갱호)
江色夜猶明 (강색야유명)
白鳥高飛盡 (백조고비진)
孤帆獨去輕 (고범독거경)
自慚蝸角上 (자참와각상)
半世覓功名 (반세역공명)

- 감로사(甘露寺)는 개성 북쪽 오봉산 밑 서강 기슭에 있는 사찰이다. 김부식(金富軾)은 혜원스님과 시를 주고 받으면서 청정무애(淸淨無碍)한 법계에 감화됨으로써 지난날에 대한 깊은 회한으로 인생에 대해 새롭게 각성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해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품는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올여름 남녘의 수해와 저 먼 히말라야 빙하 수해 소식을 가슴에 품어 아픔 또한 깊게 나눈 9월이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슬픔을 새긴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하며, 구호 성금에 동참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호가 담은 첫 소식, 7월 1일 불교여성개발원 불이상 수상은 많은 의미를 담은 쾌거였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대한민국 제일의 여성 불자 재가 단체임을 확인하고, 조계종은 물론 범 불교종단을 대표하는 전문인 여성단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오늘을 넘어 내일을 창도하는 불교단체로서 불 법승 삼보님께 귀의하며 부처님 세계 속에 불도를 이루어가는 여성들의 모임임을 증명한 수상이었습니다. 불이상에 빛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헌신하신 모든 회원님께 큰 박수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거둬되는 기후 격변 속에서도 불교여성개발원의 지혜실과 자비실에는 가치를 키우는 손길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인형을 만들고 아름다운 조각보를 잇는 바느질이 한땀 한땀 예술로 피어나고, 하모니카 음률과 합창의 화성이 벽을 타고 흐르고, 번뇌를 해독하는 부처님 법 연구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찾는 수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업사이클링 재활용의 지혜가 지혜실을 가득 채우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시니어의 글쓰기와 오브제 구성이 영근 여름날, 가을맞이였습니다. 강원지원에서, 대경지원에서, 부산지원 넘어 부울경지원까지 부처님 세계를 만나고 가꾸어가는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쁜 날들, 아픈 사연 속에서도 가을이 깊어 갑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과 인왕산 짙은 단풍의 풍광을 누리며 청운동으로 향하는, 건강하고 복된 발걸음 가벼우시기를 기원합니다~_()_ 🍁

불교여성개발원, 不二賞으로 빛나다

2026년 7월 1일, 불교여성개발원이 제41회 불이상(실천분야)을 수상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오직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수행하며 교육과 봉사
에 헌신해온 모든 불교여성개발원 회원과 함께 기뻐하며 부처님전에 감사 합장 올립니다.

“정 원장, 이번에 불이상(不二賞) 한 번 신청해봅시다.”

불이상!! 김인숙 고문님의 전화를 받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성 재가불자 단체인 불이회(不二會)가 불교계의 학술 연구와 보살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1985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각 부문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을 수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천만 원! 불교여성광장의 오롯한 건립을 위해 108연꽃피우기 모연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 불이상 상금은 참으로 탐나는 규모였다. 하지만 “여러 해 전에도 불이상에 도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후문을 듣고는 “왜 이 일을 지금 …” 싶기도 했다.

25년의 선업을 정리하고 정목스님께 추천받다

일단 원장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2000년 11월 창립 시기부터 2026년 2월 현재까지 불교여성개발원의 사명과 비전,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조직도, 역대 포교원장님(이사장)과 원장님, 각 연도별 사업명과 기구별 활동 상황 등, 자료를 찾기 시작하니, 25년 역사 속 선대 원장님들의 창의적인

시도와 활약상이 쏟아졌다.

매년 열리는 불교여성개발원 창립기념식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여성불자108인 선정, 교육·수행·봉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된 주요 연혁을 정리하고, 사진 자료를 찾아 붙였다.

대부분 사업들은 각 원장님 재임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맞닿아 있었고, 시의적절한 사업 개발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센터별 또 시기별로, 최초 시기와 현재의 사진을 찾아 대조적으로 마주 배치하니 그간 이루어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무국 식구 모두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편집하며 제출 시한 마지막까지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이상 지원 양식에 올릴 추천인이 필요했다. 오랜 세월 불교여성개발원의 사업 진행을 옆에서 지켜보고, 진정으로 이천만 원 상금 받을 자격이 있노라고 불이회에 증명해줄 추천인의 사인을 받아야 했다. 고민과 망설임을 거듭한 끝에, 30년 동안 <아픈 어린이돕기 작은사랑 운동>에 동참해온 인연으로 “2025년 영108 가족템플스테이”와 “2026년 신년법회”를 주관해주신 정각사 정목스님께 한 번 더 부탁드렸다. 불교여성개발원 초창기에 영108 지도법사를 맡아준 인연도 생각하며 정목스님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자, 지방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을 위해 추천서에 직접 사인해, 인편으로 전해주셨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부처님 법에 충실했음을 증명받은 벼찬 수상

2026년 2월 3일, 무사히 추천서를 제출하고, 설렘과 실망으로 4개월 넘게 기다린 끝의 6월 18일이었다.

“어머나!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무국에 올려 퍼진 흥분된 목소리가 ‘불교여성개발원, 불이상 실천분야 수상’ 소식을 알렸다. 수상의 기쁨과 감사함에 불교여성개발원 단톡방 여기저기에 소식을 전했다.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의 큰 몫이 생겨서도 좋았지만, 지난 25년간 헌신해온 불교여성개발원의 봉사 세월이 인정받은 성과라서 더욱 좋았다. 우리가 실천해온 일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이루어지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에 충실했음을 증명받았다 싶어서 더더욱 가슴이 벅찼다.

<不二賞 시상식>은 7월 1일 경복궁 앞 <두가현>에서 있었다. 2026년 제41회 불이상 수상자는, <연구 분야>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 분야> 불교여성개발원, 새로 제정된 <불이선행상>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 3인이었다. 30여 명의 불이회 회원들 앞에서, 홍라희 불이회 이사장이 불이상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직접 수여했고, 심사위원장의 심사 경위 소개가 있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 25년간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나날이 불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점에 2

년마다 전문인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하여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목표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여 선정되었다고 했다.

시상식 후, 갤러리 밖으로 나와 기념 촬영하고, 여러 작은 방에 나누어 점심 공양하였다. 수상자 3인을 위해서 불이회 이사장과 심사위원장, 그리고 불이회 임원 3분과 함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공양하며, 동석한 불이회 사무총장님이 그간 제출된 모든 개인과 단체의 추천서를 꼼꼼히 읽고 거의 외울 정도로 파악하였으며, 심사위원장님도 심사위원들 모두 많은 추천서를 읽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홍라희 불이회 이사장님은 사실 불교여성개발원 4차 108인이지만 불이상 선정 과정 처음부터 결정까지 단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음을 천명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인정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제41회 불이상을 수상하다!

참으로 감사한 증표이다. 이제 불이상 수상을 중간 점검표 삼아, 여성불자108인 모두 다 함께 더욱 새롭고 힘차게 미래 비전 향해 나아가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마하살 ~ 🌸

2026 새활용 공모전

낡은 조각조각이 새 것 되는 마술

매년 여름 청운동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는 ‘새활용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봄부터 관심 있는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패션쇼를 위한 의상을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작품이 많았는데 올해는 자기 손으로 뭔가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목요일에 모여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3, 4월에는 최은경선생님께 조각보 만들기를 배우고 5, 6월에는 이정호 미술심리상담 대표와 함께 인형만들기를 하였다.

정교한 바느질삼매와 상상과 창의로 완성하는 인형만들기

최은경 선생님은 멋진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갖가지 색깔의 조각 천들을 나누어주고 천을 이어붙이는 바느질기법을 가르쳐주었다. 한 면을 1cm 정도 안으로 접은 두 조각의 천을 맞잡고 1mm 정도의 간격으로 고르게 꿰매는 작업을 계속하면 두 조각의 천이 하나로 모아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천을 이리저리 붙이고 마지막에 뒷판을 붙이면 독특한 조각보가 탄생하는데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한 듯하지만 몰두해서 하다 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바느질 삼매에 드는 경험을 한다. 처음에는 바늘땀도 들쭉날쭉하고 바느질한 천도 우



글쭙글쭙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고르게 되어간다.

조각보를 만들다보면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준비작업과 과정이 좋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 깨닫게 된다. 우선 가지고 있는 천 조각들을 이리저리 놓아보고 작품을 구상한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어도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어울리는 천들을 옆에 놓다가 새로운 그림이 떠오르거나 함께 모아 놓은 천 조각들의 조합이 마음에 들면 그 모양을 종이에 그린다. 형쥬에 정확히 옮겨 그리고 시점의 길이를 계산하여 자른다. 어느 조각부터 어떻게 꿰매야 작품이 될지 생각하고 조각들을 꿰매 붙인다. 조각들을 붙일 때마다 꿰맨 솔기를 잘 펴서 다림질한다. 앞판을 다 만든 후 뒷판을 정확한 크기로 잘라서 앞판과 꿰맨다. 바느질이 끝난 조각보를 다림질하면 관관하게 퍼진 작품이 완성된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 만드는 과정에서 좀 비뚤어진 곳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곳이 너무나 분명히 비뚤어진 모양으로 나타난다.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 바느질한 수고로움이 '고급스러움'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조각보의 매력이다.

인형 만들기는 조각보와는 좀 다른 매력이 있다. 좀 비뚤어지면 비뚤어진 채로 나름대로 개성 있는 귀여운 모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료 준비와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만들고 싶은 인형의 특징과 맞는 천을 골라야 하고, 어떤 모양으로 그려서 꿰매야 내가 생각하는 형태가 나올지, 뒤집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숨은 얼마나 팽팽하게 넣어야 할지 생각해야 하고, 얼굴의 눈, 코, 입, 머리카락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지, 옷은 어떤 분위기의 옷을 만들어 입힐지 선택해야 한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입체적인 형태가 되어가는 변신의 신기함과 완성된 작품에서 어딘지 나를 닮은 아이를 발견하고 품에 안을 때의 뿌듯함이 인형 만들기의 매력이 아닐까?



7, 8월에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미스맥 서촌스튜디오에서 정성욱실장님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개성 있고 사랑스러운 필체의 글씨를 붓으로 쓰면서 쓴다기보다는 그린다는 느낌으로, 한 자 한 자 따로 떨어진 글자가 아니라 문장이나 구절 전체가 하나의 형태로 보이게 구성하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에 각자 쓴 글들을 모아 정성욱선생님의 글씨를 배경으로 가운데 흰 부처님 형상이 있는 작품에 붙여 하나의 공동화 작품을 만들었다. 한 사람의 작품이 10명의 공동작품으로 변신한 재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다시 살려 쓰는 작은 선택이 거대한 변화에 이르기

8월 27일 출품마감일까지 받은 재활용 작품은 총 59점으로 29명의 참가자가 의류, 가방, 악세사리, 인형, 그릇, 조각보, 조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을 출품하였다. 8월 28일 김인숙, 김외숙, 김선옥, 이기향 전 원장님들과 정대련 현 원장님, 그리고 하수경작가님 총 여섯 분의 작품 심사가 있었고, 8월 31일 재활용공모전 시상식과 전시 오프닝 행사가 있었다.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가 사회를 보고 전 원장님들 외에 조태숙 서울시 관광협회장, 윤정 방송인 겸 우리 문화지킴이 봉사위원장, 최희운 국가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등 내빈들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 정대련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네 번째를 맞이하는 재활용 공모대회가 여성환경운동을 선도하는 지구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하였다. 재활용 공모전을 1회부터 이끌어 온 이영주 108인회 회장은 "수개월에 걸쳐 주변에 버려지는 소재를 찾고, 디자인 구상을 하고, 수작업으로 만들어 '재활용'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고 보람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맞춰 제작된 영상은 박현주 12차 차수장과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의 협업으로 탄생하였는데 영상제작에 참여한 박현주 차수장은 "지구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오늘 내가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 쓰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많은 분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제4회 재활용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한 김외숙 심사위원장은 심사기준으로 창의성, 실용성, 심미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제작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고 심사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아래와 같다.



대상 / 이정호_자투리 천으로 만든 조각보와 동물인형, 2차 108



장려상 / 정진희_사용한 조화를 닦아 새로 구성한 조화바구니, 3차 108

특별상을 받은 무궁당 적인스님은 선방에서 수행정진을 하시는 선승으로, 오래 입어 낡은 장삼을 버리지 않고 천을 덧대고 기워서 다시 입어 물질을 아끼고 욕심을 내려놓는 검소와 무소유의 수행정신을 보여준다. 낡은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였다. 우리 절집의 오랜 전통이 기후위기로 재난이 빈발하는 이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최우수상 /
이영호_성인식에 입는 한복으로
만든 긴 조끼와 앞치마, 3차 108

우수상 /
김순철_테이블보로 만든 스커트,
6차 108



아이디어상 / 허수경_전시회 현수막으로 만든
양면 에코백, 1차 108



특별상 / 무궁당 적인스님_삼베
를 덧댄 장삼, 월정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렸던 전시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관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찬탄을 보내주었다. 모아진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은 환경을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준비와 전시를 위해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정대련 원장님과 사무국 직원들,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이영미, 이영주, 이윤희, 양정희, 허수경 준비위원님들, 함께 한 참여자들과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떠난 여행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나트랑 순례기

“친정 식구들을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베트남 나트랑 여행을 처음 구상할 때 노인자 다문화행복가족센터장이 품었던 생각이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베트남 출신 회원들이 모처럼 고향 가까이 가는 만큼, 친정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우리끼리 놀고 싶어요”

친정에 가면 다시 누군가의 딸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족의 일상을 챙겨야 했다. 한국에 온 지 이십 년 가까이 된 회원들에게도, 가족을 떠나 오랜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쉬는 여행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 엄마가 아니라 온전히 '나'로, 오랜 친구들과 자유롭게 쉬고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4박 5일의 나트랑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여행은 누군가 정해준 일정을 따라가는 방식과 조금 달랐다. 회원들은 매달 조금씩 여행비를 모았고, 날짜와 목적지도 함께 논의했다. 현지 이동과 숙소는 베트남에서 여행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고,



방문할 사찰은 현지 스님의 조언을 받아 정했다.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밖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돕는다는 이름으로 정작 회원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했고, 발길을 끊게 만들기도 했다.

“제가 정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어요. 여행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센터장은 그렇게 말했다. 돕는 사람이 계획하고 참여자가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원하는 걸 말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 센터가 오랜 시간 다문화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중요하게 여기게 된 원칙이었다.

사찰순례 같은 일정표, 간절한 기도

휴양지로 알려진 나트랑이었지만, 일정에는 유독 사찰 방문이 많았다. 도자기를 깨어 붙여 만든 린푸옥사원 같은 화려한 절부터,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이름 없는 법당까지. 회원들은 한국에서 센터장이 직접 공수해 간 김과 미역을 절마다 공양물로 올렸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떠난 여행이라 들었는데, 일정표를 보니, 노는 것보다 사찰 방문이 많네요?” 회원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베트남이 지금 딱 우란분절 기간이에요.”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는 표정이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걸 질문한다는 듯 바라보았다.

센터장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회원들의 또 다른 모습을 이번 여행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같이 오래 지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일행 가운데 유일하게 남편과 아들을 함께 데려온 회원이 있었다. 아내를 혼자 보내기 어려웠던 남편과, 작은 소리에도 유난히 예민해 늘 곁에서 돌봐야 하는 아들이었다. 한 오래된 사찰에서는 종을 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아픈 마음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회원의 아이가 종 가까이에서 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왔다. 처음에는 종의 큰 소리에 놀라 뛰쳐 나갔던 아이가 다시 신을 신고 돌아와 종 안

으로 가만히 머리를 넣고 그 소리를 들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모두 뭉클해 하며, 마음에 오래 남은 장면이 되었다고 했다.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당초 5월로 예정했던 여행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면서 한 차례 연기되었다. 어렵게 출발한 뒤에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이어졌다. 배를 타고 사찰로 향하다 거센 파도에 되돌아왔고, 귀국길에는 탑승 게이트가 갑자기 바뀌



어 비행기를 놓칠 뻔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당황스러웠던 순간들도 이제는 웃으며 꺼내놓는 여행의 추억이 되었다.

관광지 못지않게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건 숙소와 동네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바로 앞 바다, 새벽에 잡은 해산물을 길가에서 파는 주민들,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빨래하고 노래하던 저녁들, 사진 찍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한 회원의 손끝에, 그 평범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았다.

낮선 곳에서, 낯선 이로 살았던 그들을 생각하다

센터장에게도 이번 여행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표정과 몸짓으로 상황을 짐작해야 했던 며칠, 그는 한국에 처음 왔던 회원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우리가 타지에 며칠 있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 결혼 이주자로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몇 년을 살았던 거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한국말이 서툴다고, 베트남 말을 쓴다고, 고향 음식을 먹는다고 구박받던 시절을 지나온 이들이었다. 이번 여행에서만큼은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고향의 말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향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가 회원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봐 온 것도 어느새 이십 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엔 다문화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 공부와 한국 생활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관계였다. 그때 어린아이를 키우던 회원들의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과 성인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관계도 달라졌다. 돕는 사람과 도움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 결정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번 여행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센터장은 이번 여행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늘 누군가를 돌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이번 여행의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그냥 놀고 싶다”고 떠난 여행이었다. 그런데 막상 고향 가까이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사찰을 찾았고, 두 손을 모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 엄마라는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과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번 여행은 한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떠난 4박 5일.

그들이 찾은 자유는 가족을 잇는 것에 있지 않았다. 잠시 자신의 이름으로 웃고, 쉬고, 먹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있었다. 🍷

감정코칭부터 디지털시대 양육법까지

가족지원센터의 ‘함께 키움 조부모돌봄나눔 사업’

가족지원센터는 종로구가족센터와 연계한 ‘함께 키움 조부모돌봄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손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앞으로 돌보게 될 예비조부모 15명이 참여했으며, 모집이 초기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손주를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에 앞서 조부모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를 점검한 뒤, 손자녀의 발달 특성과 세대 간 양육관의 차이, 3세대 소통과 대화법, 바람직한 칭찬과 훈육 방법 등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알파세대’의 언어와 행동, 디지털 시대의 양육환경처럼 조부모 세대가 자녀를 키우던 시절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주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손주를 이해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로마 롤온과 비즈 팔찌, 반려 화분과 테라리움을 만들고 명상과 정서 치유 활동을 하며 조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가졌다. 손주에게 좋은 돌봄을 건네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에게도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석한 날에도 아쉬운 마음으로 교육 자료를 챙겨가고, 매회 진지한 자세로 손자 돌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구하는 모습에서 손자녀를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매회 3시간이라는 긴 교육 시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움을 즐기는 모습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특히 놀이 활동으로 무당벌레 만들기를 하는 시간에는 작업이 좀 복잡했는데 집에서 완성 사진을 강사에게 모두 보내는 열정도 보였다.

높은 만족도로 ‘성인기자녀 둔 부모교육’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을 마친 뒤 참여자들은 “손주와 감정에 대해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자녀를 기를 때와 많이 달라진 사회를 느꼈다”, “자녀와 손녀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9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와 노는 방법,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소통법 등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이어졌다.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전원이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면서 또 하나의 배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종로구가족센터에서도 이번 연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녀의 독립과 부모의 새로운 역할, 세대 공감과 지혜로운 소통법, 힐링요가·요리 만들기 등 나를 위한 시간, 고부갈등 해결하기 등 새로운 가족 맞이하기와 같은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한다.

7회기의 긴 여정이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애써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 종로구 가족센터 박지선 센터장님(10차 108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매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10년 차 할머니도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수강생 이승미-일반 회원

배운다는 건 내게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조금이라도 나를 성장시켜주니까. 그래서 나는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그런데 친한 후배로부터 종로구 가족센터에서 여는 ‘조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아, 재밌겠는데?’ 하면서도 살짝 망설이긴 했었다. 무슨 일이든 10년을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된단데, 할매노릇 이미 만 10년을 넘어서는 내게도 그 공부가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켠에서 슬쩍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나의 무지에서 나온 선입견이었을 뿐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10년 차 할매가 배울 내용이 정말 많았다.

7주간의 강의는 양육자인 ‘나’를 알기 위한 MBTI로 시작, 어린 짝들 고유의 성정을 알고 인정하며 그들에게 감정코칭으로 다가가는 공부, 요즘의 핫이슈인 디지털 성범죄와 스마트폰 지도까지, 교육내용이 무척이나 다채롭고 또 구체적이었다.

암튼 소중한 손자녀들을 잘 돌보려면 양육자인 나부터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나를 위로할 줄도 알아야 참어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 내가 받은 조부모 참(!)교육의 결론이라고나 할까.



열정적이던 박수진 강사님께,
온화한 미소가 아름답던 반 친구들 모두께
깊은 감사함을 전하며♡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종로구 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조부모돌봄나눔 과정에 이어
‘THE 행복한 부모되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응원,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16 (금)~11/20 (금) 14시~17시
- 장소 : 2층 지혜실
- 참가비 : 무료
- 지원 : 종로구 가족센터
- 신청 : 구글폼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8sUWiMAvIX_JihbVFBGdJp9kaOwMh2VLYuPpsxUT_q06O_w/viewform?usp=header

- 문의 : 고은자 센터장 _010 9592 2759



AI와 대화하고 희곡을 썼다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7월, 불교여성개발원에서 ‘AI 글쓰기와 오브제디자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단순히 AI를 배우러 갔었다. 수업이 거듭 될수록 강사님의 열정적인 수업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본격적인 글쓰기에서는 AI가 글을 잘 써주면 조금 다듬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AI가 만들어준 글을 읽어 보니 이상하게 잘 읽히지 않았다. 문장은 매끄러웠지만 ‘내 글’ 같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고치고, 표현을 바꾸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덧붙였다.

그때부터 AI 글쓰기의 재미와 동시에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럴듯한 문장이라도 내가 오래 고민하고 마음을 담아 쓴 문장과는 달랐다. AI가 잘 쓰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오히려 그 차이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희곡 《거울 속 낯선 사람》 ‘나는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AI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은 결국 나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희곡 《거울 속 낯선 사람》이다.

주인공 연제린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임상전문가다. 환자의 몸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한 환자가 “몸은 나았는데 왜 저는 아직 아플까요?”라고 묻는 순간, 연제린은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칼 융의 ‘그림자(Shadow)’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감추고 외면했던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 같은 마음의 일부다.

연제린은 결국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한다.

“날 없애려 왔니?”

“아니. 함께 살러 왔어.”

나는 이 대사를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그림자는 늘 따라다니지만,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연기하면서 오히려 나를 알아가는 경험

그런데 이 수업의 재미있는 뒷이야기는 희곡이 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희곡을 썼고, 지금은 그 희곡들을 실제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매주 만나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연기감독님들의 정성스러운 지도를 받으며, 배역을 정하고 대사를 외우며 장면을 맞춰가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연기를 한다는 것이 낯설었다. 배역을 맡아 무대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그

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특히 한 인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저 인물이 하는 대사는 어떻게 표현하여 전달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나는 왜 이런 순간에 이렇게 반응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을 연기하면서 오히려 나를 알아가는 경험이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발견이었다.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희곡 속 거울을 오브제로 만들었다. 작품이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손거울에 작품의 메시지를 담았다.

거울을 보면 우리는 얼굴을 확인한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에게 “괜찮아?”라고 묻는 일은 얼마나 자주 할까. 이 질문은 불교에서 배워온 ‘마음을 바라보는 일’과도 닿아 있었다. 칼 융의 그림자와 불교의 가르침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번 창작은 내게 큰 성찰이 됐다. 그리고 AI를 사용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AI는 분명 필요한 도구이고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의존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작은 사명감도 갖게 됐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앞선 세대가 오랜 시간 배우고 만들며 쌓아온 노력의 결과다. 이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해 우리가 배워온 가치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번 수업에서 내가 배운 것은 AI 글쓰기나 희곡 쓰기만이 아니었다. AI와 대화하고 문장을 고치고, 희곡을 쓰고, 오브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고 무대에 설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다.

아직 우리의 연극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매주 만나 연습하고 있다. 실수하고 웃으면서 조금씩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더 즐겁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본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와 천천히 눈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춰 거울 속의 나에게 물어보고 싶다.

“너는 오늘 괜찮았니?”

그리고 조용히 대답해주고 싶다.

“괜찮다. 지금까지 잘 왔다.”

어쩌면 우리가 끝내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나 자신이다. 🌸

효가 건축이 된 오백년의 기억

어머니를 위한 정자, 삼구정

안동의 소산마을은 오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동 김씨가 대를 이어 살아온 대표적인 씨족마을이다. 안동 김씨는 경상북도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성족 가운데 하나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며 우리 사회와 문화에 깊은 발자취를 남겨왔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울 장동(壯洞, 오늘날 청와대 인근)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안동 김씨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정을 주도하였다. 소산마을은 이른바 세도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한 장동김(壯洞金) 계열 선조들이 살던 마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마을에 남아 있는 것은 권력의 역사만이 아니다. 효와 학문을 숭상하고, 예와 절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한 가문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커커이 쌓여 있다.

정자에서 색동옷 입은 세 아들이 춤추다

마을 입구 풍산 들이 넓게 펼쳐진 시작지점의 낮은 언덕에 오르면 작은 정자 하나를 만난다. 바로 삼구정이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방으로 열린 마루와 단정한 지붕, 주변의 오래된 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은 자연 속에 조용히 자리한 듯하다. 그러나 이 작은 정자에는 오백 년이 넘는 시간과 한 가족의 애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삼구정은 연산군 2년인 1496년, 안동 김씨 입향조 비안공 김삼근의 손자인 김영전·김영추·김영수 세 형제가 88세의 어머니를 위해 세운 정자이다. 당시 만아들 김영전은 57세, 둘째 김영추는 53세, 막내 김영수는 50세였다. 이



삼구정 옆에 우뚝 선 노거수 느티나무가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조용히 안내하는 듯하다.

미 인생의 절반을 훌쩍 지나온 세 아들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이었다. 어머니는 여름이 되면 집을 나와 마을 입구의 낮은 언덕에 올라 나무 그늘에서 쉬기를 즐겼다고 한다. 이를 본 세 아들은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세 형제의 효심이 모여 삼구정이 세워졌다.

정자가 완성되던 날, 세 아들은 어머니를 가마에 모시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

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한다. 손을 넘긴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었을 것이다.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자식이었고,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성현이 남긴 「삼구정기」에도 이러한 형제들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어, 삼구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마련한 효의 공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거북을 닮은 세 개의 바위, 삼구석

정자의 이름에도 세 아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정자 곁에는 거북을 닮은 세 개의 바위가 있어 삼구석(三龜石)이라 불렸고, 삼구정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거북은 예부터 장수와 길상의 상징이었다. 세 형제는 세 마리 거북을 닮은 바위에 어머니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한편 삼구정 앞에 놓인 세 개의 거북 모양 바위는 고인돌로 추정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사실이라면, 삼구정이 자리한 이 언덕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삶의 흔적을 남겨온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선사시대의 흔적 위에 조선시대 세 형제의 효심과 누정 문화가 더해지고, 다시 오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이 쌓였다.



삼구정 옆에 놓인 거북이 닮은 바위 셋. 장수를 바라는 세 아들의 염원을 담았다.

거북을 닮은 오래된 돌과 어머니를 위해 세운 정자,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삼구정은 그렇게 단순히 한 시대의 건축물이 아니라, 아득한 시간과 사람들의 삶이 만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기쁨

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삼구정이 완공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정자를 지었던 세 아들에게 그 이별은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 정자를 완공하고 함께 기뻐했던 시간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정자는 남았지만, 어머니와 오래도록 이곳에서 풍경을 바라보리라던 세 아들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며 세운 정자는 어머니가 떠난 뒤에는 오히려 세 아들의 깊은 그리움과 효심을 간직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삼구정에 올라 풍산들을 바라보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오백여 년 전, 이 언덕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색동옷을 입은 채 춤을 추었을 손이 넘은 세 아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는 듯하다.

세월은 흘러 사람은 사라졌지만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했던 세 아들의 마음 역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오백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삼구정은 단순한 옛 정자가 아니다. 효가 건축이 되고, 사랑이 기억이 되어, 한 가족의 마음이 오백 년의 시간이 된 곳이다. 🍁

보광전 기도로 왕비로 복위하다

인현왕후와 김천 청암사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김천 청암사의 인현왕후 복위식은 이제 김천을 대표하는, 엄숙함과 격조를 갖춘 행사이다. 김천 청암사는 제19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머물렀던 사찰이다.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있는 동안 한 번도 회임하지 못했다. 후계를 간절히 바랐던 숙종은 후궁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은 이듬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승격한 후 그녀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다. 15살에 조선에서 가장 존귀한 왕비의 지위를 얻었던 인현왕후는 8년 만에 궁에서 쫓겨났다. 당시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였고, 숙종에 의해 노론이 대대적으로 숙청되면서 사가로 돌아온 그녀를 보살펴줄 친정조차 변변하지 못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기, 인현왕후는 한양을 떠나 청암사에 머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인현왕후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매년 10월 인현왕후 복위식 열려

인현왕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뜻하지 않은 운명 앞에서 굴곡을 거듭했다. 그녀는 노론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게다가 그녀의 외할아버지 송준길은 명망 높은 사대부이자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은 스승 송준길의 딸 은진 송씨와 혼인하여 2남 5녀를 두었다. 인현왕후는 넷째로 위로는 언니와 두 오빠, 아래로는 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처럼 다복한 가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현왕



후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어머니 송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인현왕후의 언니는 이미 혼인하여 시댁에서 살고 있었고 젖먹이 여동생과 갓난 쌍둥이 여동생들은 너무 어렸기에 14살의 장남 민진후, 9살의 차남 민진원, 6살 인현왕후 삼남매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인현왕후가 14살이 되던 숙종6년,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인경왕후는 숙종과의 사이에서 딸만 둘을 낳았으나 모두 요절하였고, 유산 후



몸조리 중 천연두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시기, 혈기 왕성한 스무 살의 숙종은 궁녀 장씨에게 반하여 승을 내렸다. 소식을 들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대비는 장씨를 보자 그 미색이 장차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출궁시켰다. 그리고 왕비 간택을 서둘렀다. 이듬해인 숙종7년(1681) 4월, 왕비의 삼년상이 끝나기도 전 부랴부랴 새 왕비가 된 여인이 바로 인현왕후이다.

왕비가 된 것은 인현왕후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왕비가 된 이상, 그녀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졌다. 가문과 노론을 대표해야 했고, 숙종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생산해야 했으며, 숙종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궁녀 장씨를 대적해야 했다. 이는 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15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었다. 명망 높은 친정 덕분에 하루아침에 높고 귀한 자리에 앉은 인현왕후는 그 화려한 지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폐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기도의 삶

숙종14년(1688) 10월, 후궁 장씨가 왕자를 낳았다. 이때 숙종의 나이는 스물여덟, 장씨의 나이는 무려 서른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첫아들을 얻은 숙종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고 장씨의 품계를 정1품 희빈으로 승격했고, 동시에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여 종묘와 사직에 고했다. 조선에서 ‘원자(元子)’로 불릴 수 있는 왕자는 오직 왕과 왕비의 장남, 적장자 뿐이니 숙종은 이제 막 태어난 장희빈의 아들이 장차 왕위를 계승할 후계임을 공표한 것이었다. 이어서 숙종은 원자 책봉을 반대한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왕비가 된 지 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회임하지 못했던 인현왕후는 숙종의 뜻을 막을 힘이 없었고 노론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힘을 잃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원자를 향한 숙종의 총애와 노론에 대한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숙종15년(1689) 5월 4일, 숙종은 인현왕후를 서인으로 강등하여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출궁시킨다. 이때 인현왕후의 폐출 교지와 희빈 장씨의 왕비 승격 교지는 불과 이틀 사이로 내려졌다. 이는 모든 반대를 단호하게 물리친 숙종의 강력한 의지였다.

“비(妃) 민씨(閔氏)는 화순한 성품이 부족하고 유한(幽閑)한 덕이 적었다. 대개 책봉(冊封)을 받은 처음부터



경계하고 삼가함을 생각하지 않았고, 궁중에서 질투하는 일을 드러내어 실로 허물이 많았다. (중략) 이는 실로 국가의 흥망 성쇠에 관계되나, 내조(內助)의 공을 바랄 수 없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섬길 수 없는 자이니, 드러내어 폐출(廢黜)하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 이에 5월 초4일에 비(妃) 민씨(閔氏)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는다. (하략)”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5월 4일

“희빈(禧嬪) 장씨(張氏)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 인효 공검(人孝恭儉)하여 덕이 후궁(後宮)에 드러나 일국의 모의(母儀)가 될 만하니, 함께 종묘(宗廟)를 만들고 영구히 하늘의 상서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에 올려서 왕비를 삼노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일체 예절(禮節)에 따라 즉각 거행하게 하라.”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5월 6일

숙종의 왕명으로 폐출된 인현왕후는 무려 5년을 사가에 머물렀다. 아버지 민유중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인현왕후는 죄인의 신분이었으며 노론은 집권 여당의 자리를 잃은 채 위축되어 있었기에 두 오빠도 그녀를 보살필 수가 없었다. 이 시기, 인현왕후는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다. 한양을 떠나 김천 청암사에서 머물며 보광전에서 기도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결정했던 이 선택이 결국 인현왕후의 운명을 바꿨다. 숙종 20년(1694) 인현왕후는 노론이나 가문의 도움 없이 숙종의 부름을 받고 환궁하여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복위한다. 폐출된 후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인현왕후는 과연 김천 청암사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 답은 인현왕후가 복위된 이듬해 청암사 스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비녀와 잔 그리고 신발과 함께 청암사에 보낸 편지 ‘인현왕후어제등록’에서 찾을 수 있다.

편지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제야, 내가 환위하고서도 전보다 갑절이나 간절히 밤낮없이 운 스님, 적 스님과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옷과 발우를 다 팔아서 신령한 절을 중창하고, 축원하는 전각을 새로 지으셨다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위해 마음 쓰심과 제가 스님을 위해 은혜에 감사함은 다른 이가 말할 바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스님들께 비녀와 잔과 신 3가지를 신표로 바꾸어 보내드립니다.”

인현왕후가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후 머물렀던 청암사는 이제 그녀의 이름을 기리며 매년 10월, 인현왕후 복위 행사를 하고, 9km에 달하는 ‘인현왕후둘레길’을 걷는 축제의 시간을 갖는다. (사진 제공/ 청암사) 

미타사 상덕 주지스님

보살 정신으로 자비복지 실천하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달맞이봉 아래에 천년 역사를 지닌 전통 비구니 사찰인 미타사가 있다. 250여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울창한 도랑에는 7개의 암자가 나란히 자리하고, 전각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미타사는 30여 점의 서울시 유형 문화재가 있는 보물같은 사찰이다. 이 미타사에 청정 수행과 정법 포교, 자비복지를 원력으로 정진수행하여, 지난해 비구니 스님 최고 품계인 명사(名師)가 되신 정견당(正見堂) 상덕(常德) 주지스님이 올해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상덕 스님은 불교복지 활동을 30여년간 펼치고 계신 ‘최초의 비구니 복지수행자’로 스님으로 인해 미타사는 불교의 자비보살 사상을 복지로 실천한 불교사회복지의 시원지가 되고 있다.

불교복지는 사회와 소통하는 포교와 수행

“단명할 것이니 절로 보내어 명을 잊게하라”라는 한 스님의 말에, 귀한 외동딸은 미타사에 오게 되었다. 경화 노스님과 법성 은사스님의 유난한 사랑 속에 사회정규교육과정을 마칠 즈음에 두 분 스님께서 입적하셨다.

덕분에 스님은 20대부터 사찰운영과 학업, 신도포교를 동시에 해야했지만 힘들 때마다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실천했다.

동국대학을 졸업하면서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은 스님은 미타사 정수암의 신도법회와 어린이 법회, 청년법회를 개설하고, 성동구청, 경찰서, 교도소에도 법회를 개설하여 활발히 포교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기독교가 200년이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민중들의 삶 깊숙히 파고든 원인이, 인간 삶에 꼭 필요한 의료, 교육, 복지사업을 전개하여,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신도가 되고 사회를 리더함을 깨달은 스님은 불교 복지행을 실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절 가까이 있는 성동구청에서 건립한 옥수





사회복지관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을 통해 1997년 9월 옥수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았다. 6개월 동안 수십명의 직원을 뽑아, 1998년 3월 26일 개관하였다. 그로부터 2017년까지 20여년 간 관장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불교자비복지를 실행하였다. 이 20년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던 시기로, 불교계가 현대적인 사회복지재단을 갖추고, 각 지자체들에서 복지 시설을 위탁 받아 활발히 자비복지를 전개하던 시기였다.

“아들 딸 필요없고 옥수복지관만 있으면 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남녀노소 각 계층을 위한 놀이치료, 미술·음악·언어치료, 장애아교실,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경로식당 등 100개의 유·무료 프로그램과 홍보지 <감로수>를 발간하

였다. 성동구 각 지역에 성수노인센터, 건강증진센터 금호 복지관 등 10여개의 부설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부처님의 자비구원 사상으로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하는 자비복지를 실천하였다. 그 당시 한 어르신이 “나는 아들 딸 필요 없다! 옥수복지관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복지관에 오면 따뜻한 식사 대접에 정다운 친구가 있고 각종 병원 연계 진료서비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스님은 45세에 복지관장이 되어, 65세 정년퇴임 때까지 인생의 가장 소중한 20년을 매일 아침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또한 미타사 정수암 주지 소임을 겸하느라 밤잠을 줄이며, 관장으로서 할 일을 준비했고, 주지로서 각종 법회 설법과 사찰 운영 업무를 새벽 예불 후 출근 전까지 준비해야 했다. 정년 후 2018년도에는 미타사 전체 주지에 선출되었다. 천년 고찰임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불자문화재위원 분들을 모시고, 대대적인 지정작업을 하여 2021년도에 30여 점의 미타사 성보물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받는 역사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건물 증축 불사를 진행하고, 서울시나 종단을 통해, 문화축제비를 지원받아 ‘풍경소리 음악 축제’와, ‘불교문화 체험 축제’를 열었다. 지역민과 신도들이 함께 모여 보고, 듣고, 놀고, 먹는 오감 만족의 체험으로, 사찰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고, 언제라도 심신의 수양을 위해 찾아 올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현재에도 상덕스님은,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복지관, 연꽃 어린이집, 성수노인센터 등 11개의 복지와 보육시설들을 운영 관리하며 100여 명의 불교 복지전문 직원들이 힘차게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음양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릴 때마다 “요즘은 바빠서 다음에 하지요.” 하시던 말씀을 찾아 뵙고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불교 사회복지의 자비행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장

상덕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불교의 자비행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장으로 보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맞게 된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기반이 없어 스님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부딪치며 복지관의 기초를 세워야만 했다. 실직한 가장들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운영 등 절실한 과제부터 복지관과 사찰, 지역주민이 함께 어르신을 돕는 행사를 만들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선물, 문화공연하는 <관세음 효행잔치>, 1997년부터 시작한 <행복무지개 옥수바자회>는 수익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활용하여 사찰 → 신도 → 지역주민 → 복지관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는 종교복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복지 과제인 외로움, 가족관계 단절, 노년 상실감, 청소년 마음의 문제를 위해 상덕스님은 자비 명상과 연계하여 마음치유와 자비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는 종교복지가 인간의 마음을 돌보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자비를 제도 속에서 조직화하다

상덕스님의 특별함은 자비를 제도 속에 넣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재정을 마련하고,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며 수십 년 동안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스님은 불교의 자비를 관념으로만 말하지 않고, 실제로 한 지역의 복지관을 오랫동안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비의 실천으로 보았다. 스님에게는 수행이 곧 자비이고, 자비가 곧 복지이며, 복지는 다시 사람을 살리는 수행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복지관 직원들에게도 단순히 업무 능력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 퇴근 후에 미타사에서 <반야법회>를 열어 발원문을 쓰며 복지의 현장에서 불교적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로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들도 타인과 연결된 존재라는 자각을 일깨워준 것이다. 스님은, “불, 보살님들의 마음을 본받아 부처님 가르침대로 20년간 직원들과 함께하니, 불협화음이 없었고, 100여명의 직원들이 사고 없이 원만히 보람으로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이 돌이켜보니,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회고하였다.



스님과 함께 옥수역으로 나오는 길에서도 여러분이 스님에게 다가와 인사를 한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스님’ ‘스님’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오면 무어라도 나누며, 따뜻하고, 푸근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절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지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다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웃는 것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미소 가득한 온화한 얼굴, 몸을 낮추어 눈을 맞추는 다정함,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심우도의 마지막 장에 나올 법한 보살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국화축제와 중앙절

때를 기다려 서리 뒤에 피는 꽃

시월의 절 마당은 조금 다른 풍경을 띤다. 일주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코끝에 마른 풀 냄새도, 향 냄새도 아닌, 약간 씹쓸하고 서늘한 국화 향이 먼저 닿는다. 고개를 들면 그제야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노랗고 흰 꽃들이 보인다. 어느 절이든 요즘은 가을이면 국화를 내놓는다. 누구는 그것을 축제라 부르고, 누구는 전시라 부른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이 꽃들은 왜 하필 이 계절에, 이 마당에서 피어있을까?

국화차를 공양하며 천도재를 올리는 절집

음력 구월 초아흐레를 중앙절(重陽節)이라 한다. 홀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양수인 아홉이 겹치는 날이라 하여 '양이 거듭된다'는 이름이 붙었다. 올해는 10월 19일이 딱 그날이다. 옛 사찰에서는 중앙절 무렵 차례를 올리고 천도재를 봉행하고 방생을 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충담 스님이 해마다 삼월 삼진날과 구월 중앙절이면 차를 달여 삼화령 미륵부처님께 올렸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민간이 국화를 술에 띄울 때 절에서는 국화를 차에 넣었다. 같은 꽃, 다른 그릇. 취하는 대신 깨어서 올리는 것이 절집의 방식이었다.

조계사에서는 매해 중앙절에 천도재를 올린다. 조계사 지장법회 봉행팀이 극락전 부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조상 영가의 위패를 모신다. 시련으로 영가를 맞아들이고, 대령에서 자리를 권하고, 관육으로 씻기고, 지장보살께 공양을 올린 뒤 제사를 지낸다. 죽은 영가를 모시고 산 자를 위한 제를 지내는 것이다.

중앙절의 탄생 배경이 참 재미있다. 옛날 환경(桓景)이라는 사람이 스승에게서 "구월 구일에 집에 재앙이 닥칠 터이니 식구들에게 수유 주머니를 차게 하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 그대로 하



고 돌아오니 집안의 가족이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한다. 재앙이 사람 대신 짐승을 거둬 갔다는 것이다. 그 날부터 사람들은 구월 구일이면 산에 올랐다. 붉은 수유 열매를 주머니에 넣어 허리에 차고, 국화 꽃잎을 띄운 술을 마시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시를 지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의 선비들은 이날 단풍 든 산에 올라 국화전을 부쳐 먹고 시조를 읊었다. 집안에서는 기

일을 모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이날 몰아서 지내기도 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산으로 오르고, 죽은 이는 집으로 불러들이는 날. 위와 아래가 동시에 열리는 날이었다.

액을 피하러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다

액을 피하는 방법이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라니. 도망치는 것도,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멀리 보는 것. 그 정도면 재앙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발상이 순진하면서도 인상적이다.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도 사실 그것 아닌가. 문제를 없애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러 가는 것. 삶의 이치가 녹아든 조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 꽃의 향은 바람이 불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봄부터 이 꽃을 기른 손의 향, 늦게 피어도 좋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이들의 향은 다르다. 그것은 바람을 거슬러 간다. 시월의 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받아 오는 것은 사진 몇 장이 아니라 그 향이다.

그리고 보면 국화는 이상한 꽃이다. 봄꽃들은 해가 길어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앞다투어 핀다. 그런데 국화는 반대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야 비로소 꽃눈을 만든다. 식물학에서는 이런 꽃을 단일식물이라 부른다. 빛이 줄어드는 것을 신호로 삼아 피는 꽃. 그래서 국화는 서리가 내린 뒤에도 남아 있고, 옛사람들은 그것을 오상고절(傲霜孤節), 서리에도 굽히지 않는 외로운 절개라 불렀다.

그런데 국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한하고 희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화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꽃들이 다 피고 다 지는 동안, 국화는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봄에 피지 못했다고 초조해하지 않고, 여름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세상의 빛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조용히 자기 몫의 꽃을 낸다.



절 마당의 국화 앞에서 있으면 여러 얼굴이 떠오른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야 붓을 잡은 이,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경을 읽기 시작한 이, 손이 넘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시작한 이. 그들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간표와 달랐다.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무상(無常)은 지나가기 때문에 온다.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이 오고, 빛이 물러나야 국화가 핀다. 변하지 않는다면 국화는 영원히 피지 못한다. 무상은 늦게 피는 것들의 편이다.

그래서 나는 올해 중양절에도 절에 갈 것이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향이 먼저 올 것이고, 꽃은 그다음일 것이다. 그리고 꽃 앞에 서서 조용히 물을 것이다. 나는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가. 아직 빛이 길어 피지 못한 것이라면, 서두를 것 없다. 해가 짧아지면 피는 꽃도 있다. (사진/조계사 홈페이지)

결혼수 불두화 심은 평생 기도처

지리산 선림사

저의 불연(佛緣)은 고3 시절, 허리디스크의 아픔 속에서 불안을 다독이려 시작한 금강경 사경이였습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늘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스승이신 보우 법사님을 만나 108배와 삼천배 정진을 시작했고, 100일 기도를 회향하며 수행자로서의 신심을 다졌습니다. 이후 2010년 겨울에는 해인사 퇴설당 수계식에서 법전 큰스님께 ‘무착행’이라는 법명을 받으며 애착 없는 보살행을 하라는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당시 법사님과 대중들은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마침내 2012년 봄, 지리산 선림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수행처를 옮겨 다니던 나날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2012년 결혼하여 대구에 신혼집이 있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선림사로 달려가 도량을 가꿨습니다. 수월암으로 가는 길을 내고 풀을 뽑으며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법사님과 함께 결혼수로 고른 불두화는 지금도 법당 오른편에 환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기둥 하나에도 정성이 아로새겨져 태어난 선림사 법당. 마침내 마루가 깔리고 좌복을 놓은 뒤 첫 절을 올리던 날, ‘평생 마음 편히 기도할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아를 품고 운력과 절 수행을 하다

도량이 완성되고 1년 후, 남편의 변호사 시험 합격과 함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오신 채 냄새를 조금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지도, 집에 머물 수도 없



는 저는 살기 위해 선림사로 향했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정갈한 공양 향기를 맡으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임신 덕분에 새벽 예불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며, 잠도 실컷 자고 보살님들이 해주시는 따뜻한 공양을 먹었습니다. 운력과 절 수행을 병행하며 보낸 그 100일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교 덕분인지 아이는 지장재일에 태어났고, 저는 순하디순한 아이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이는 잠이 없고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려 하루에도 몇 번씩 금강경을 독송하고 반야심경을 읊어주며 겨우 재웠습니다. 아이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이 없는 아이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을 읽으며 염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수행이었습니니다. 이어 둘째를 낳아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아이들은 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며 늘 언행을 다듬고 순간의 화를 경계하게 되었으니, 육아라는 삶은 그 자체로 수행이었습니니다.



내 삶과 가족을 품어준 거룩한 도량

아이들이 자라며 선림사는 온 가족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4~5시간을 내려가는 길 또한 기도였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선림사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마당을 누비고, 수곽에서 물놀이를 하며, 보살님들과 법우들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자연 속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며 자란 두 아이는 2026년 강도 높은 인도 성지순례를 훌륭히 소화해 냈고, 석가탄신일에는 천 개나 되는 연등표를 끼우고, 높은 곳에 연등을 달며 든든한 일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번 여름, 두 아이를 일주일간 독서캠프에 보내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발길이 향한 곳은 역시 선림사였습니다. 아이들 없이 홀로 선림사에 오니 다시 순수한 법우로 돌아간 마음이었습니다. 늘 빠듯했던 일상과 달리 홀로 보내는 시간은 무엇을 해도 여유로웠습니다. 그 여유 덕분에 12



년간 품어온 진로에 관한 고민에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통의 가치를 이어나가라던 법사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통찰이었음을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마다의 간절함을 품은 이들이 선림사를 찾아옵니다. 삶의 힘든 일을 계기로 발심하여 수행을 이어나가고, 아픔이 치유되며, 부처님 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선림사가 아닐까 합니다. 저에게 선림사는 제 삶을 지탱하고 온 가족을 품어준 안식처이자 나를 찾아가는 거룩한 도량입니다. 저는 오늘도 선림사 법당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발원합니다. 이 땅이 불국토와 같이 태평하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지어질 선림사 서울 법당과 선림사 도서관이 세워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

○ 확대임시이사회, 운영위원회

7월 18일 12시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확대 임시이사회가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고문 7분과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그리고 정영수님(4차 108인)과 강미중님(5차 108인) 포함하여 41인이 모여 개발원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공양 시간에 김애주 고문님이 피아노 즉석 연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해주셨고, 이어 최희영님(7차 108인)이 ‘고문님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정가(正歌)를 불러 의미를 더하였다.



9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원 창립을 위한 준비과정 보고, 차기 14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과 11대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선출을 위한 진행 일정을 의결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네팔 빙하수해 및 국내 수해 복구를 위한 구호 성금을 모연하고, 국내외에 전달할 성금 배분 비율 및 전달 방법에 대해 토의하였다.



○ 네팔 빙하수해 구호성금, 2천5백여만 원 모연

9월 1일부터 시작한 네팔 빙하수해 및 국내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다. 9월 15일 현재 총 168명의 회원이 동참해 25,180,000원이 모였다.

운영위원회는 단독투표를 통해 모연된 성금 가운데 2천만 원을 네팔 빙하수해 구호성금으로 배정하고, 홍

대선원 준한 스님을 통해 현지 교량 건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나머지 518만 원은 국내 수해복구를 위해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네팔 구호성금을 교량 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데에는 현지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최근 네팔을 직접 다녀온 준한 스님은 피해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복구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현지에서는 이번 홍수로 56개의 다리가 유실돼 세계 각지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오더라도 정작 피해지역까지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량 복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14일 홍대선원에서 준한 스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12차 108인회 회원들도 교량 복구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박현주 차수장은 “우리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귀한 성금인 만큼 가장 절실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구호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가 복구된다면 일회성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의 회복을 돕는 든든한 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끊어진 길을 다시 잇고 필요한 구호가 피해 주민들에게 닿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교량 건설 지원의 의미는 더욱 크다. 향후 완공된 다리에는 회원들의 나눔을 기억하는 현판도 마련될 예정으로, 한마음으로 모은 자비의 실천이 네팔 현지에 오래도록 남는 인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41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실천분야)과 불이회 초청 수상자 특강

7월 1일 불교여성개발원이 제41회 불이상의 실천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어, 정대련 원장, 이영주 여성불자108인회 회장이 두가현에서 열린 불이상 시상식에 참가하여 수상하였다.



9월 16일에는 불이회 초청으로 정대련 원장이 리움미술관 강당에서 불이상 수상 기념 특강을 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의 26년 역사와 (사)지혜로운여성의 19년 역사가 이루어낸 사회적 실천이 45분에 걸쳐 펼쳐졌다. 특강 자리에 참석한 이인자 초대 원장님과 김인숙 고문님을 비롯한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은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일원이 되리라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이회 홍라희 이사장(4차 108인)은 개발원 회원들과 기념 촬영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한편 시상식 후 불교여성광장에 돌아와, 강원도 영월의 한정화님(9차 108인)이 밤새 준비해온 따뜻한 찰밥과 메밀전으로 점심 공양하고, 불이회 홍 이사장님이 준비해주신 케이크와 슈크림, 그리고 불이회 남지현님이 후원한 떡으로 '불이상 수상 축하 파티'를 하였다. 멀리 부산에서 손은주님(12차 108인)이 특강에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했다.



○ 부산 안국선원에서 수불큰스님의 법문과 차담을 나누다

7월 14일, 서울 본원의 정대련 원장과 이기향 전 원장, 노인자 부원장과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 등 4인이 부산 안국선원을 방문하여 수불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차담을 나누었다. 수불큰스님께서는 초하루 법회와 범어사 특별전시회 오프닝 행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교여성개발원의 부산울산경남지원의 확대 출범을 응원하시며 기꺼이 차담 자리를 마련해주셨다.



특히 안국선원의 신도회 천양자 회장님과 범어사 학림 왕선자 상임고문님은 2차 108인 동기생으로 부울경지원의 출범을 응원하기 위해 동석하셔서 오랜 우정 이야기를 비롯해, 앞서 활동해온 부산지원의 창립과 발전 역사를 들려주시고, 곧이어 출범할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아우르는 부울경지원의 확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더해 주셨다. 대경지원 임원 3인(최경분 9차, 조재란 10차, 최순희 11차 108인)도 함께 자리하여 모두들 반갑고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기향 전 원장님의 단청컬러우산 작품, 노인자 부원장님의 호두호룽지,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님의 옷칠 불화 퍼즐 등, 세 분이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성으로 마련한 선물을 수불 큰스님과 천양자 회장님께 전달하며 흐뭇한 마음을 나누었다.

더불어 부산울산경남지원의 출범을 위해 108인회 막내로서 심부름을 자처하신 손은주 건국중학교 교장선생님(12차 108인)이 부울경지원 준비위원회 소임을 맡아 감사 인사를 받았다. 모처럼 부산 지역의 여예진(6차 108인) 사중금박물관 관장과 중국 상하이 허촨래인중의 병원의 후원숙 박사(8차 108인)가 합석하고, 울산의 12차 108인 이지윤 회원이 동행하며, 부울경지원의 출범 준비에 힘을 더했다. 새로운 부울경지원의 운영진 구성

과 체제 구축에 큰 기대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8월 20일 정대련 원장은 다시 부산을 방문하여, 2012년부터 오랜 기간 부산지원을 이끌어 주신 김수현 부산지원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영숙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부산회원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부자 명패 추가

청운동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뜻을 모은 기부자들의 이름이 오랜만에 새롭게 새겨졌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1년부터 불교



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108연꽃피우기' 모연을 이어오며, 2022년까지 동참한 기부자들의 이름을 명패에 새겨 1층 사무국과 2층 지혜실 앞 벽에 게시해왔다. 2026년 8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참한 54명의 기부자들의 명패가 3층 자비실 앞 벽에 새롭게 추가됐다.

1층에서 3층까지 이어진 이름들은 불교여성광장을 함께 일구어온 회원과 후원자들의 정성과 원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 행안부공익사업 “메모리 투 메시지: 시니어, 미래를 프롬프트하다”

7월 30일 2026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AI 시대, 나의 삶 무대에 오르다> 6주간 교육 과정을 마쳤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6주에 걸쳐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희곡 쓰기과 희곡 관련 오브제 디자인에 도전하였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한결같은 열정으로 배움에 임하고, 각자

의 이야기를 소중한 작품으로 완성해 주신 참여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8월 말 AI와 함께하는 희곡쓰기 교육으로 23편의 개인별 희곡이 완성되었으며, 9월 현재 각각 디자인한 굿즈의 실물 제작이 진행 중이고, 불교여성개발원 인근에 위치한 경북아트홀에서는 최종 집필된 <나의 삶, 나의 무대> 공연 연습이 한창이다.



○ 대구경북(대경)지원, 명적암 템플스테이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명적암 템플스테이에 다녀왔다.



총 19명이 참석하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불교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온과 회원 간 소통과 친목을 강화하여 대구·경북지원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교정교회센터

• 6월 지혜로운 네트워크가 만든 ‘찬불가 하모니’

원래 명상요가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지만, 당일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진행이 불가능해진 난감한 상황! 김정화 총무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함께 하시는 사찰 합창 지휘자를 급 섭외!’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성사! 아이들은 지휘자님의 따스한 지도 아래 함께 찬불가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다. 예정에 없던 만남이었지만, 오히려 그 진한 여운은 더 깊었다.



• 7월 역사 속으로 떠난 흥미진진한 여행

많은 아이가 교정교회센터를 떠나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입소한 시기였다. 서막한 공기를 깨기 위해 남동현 부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7월의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머리 아픈 역사 공부보다, 흥미진진한 ‘장기 게임’으로 문을 열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장군의 대명사 ‘한신’. 부원장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과연 아이들의 머릿속에 한신 장군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을까?

• 8월 여름수련회, 내 마음의 부처모드 켜기

8월은 일 년 중 가장 뜨겁고 특별한 날, 바로 ‘여름수련회’가 펼쳐진 달이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공간을 함께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초청된 강사진의 면면도 그야말로 화려했다.

- 감성풀 김윤주 대표: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 만점 캘리그라피 수업
- 박사 북칼럼니스트: 아이들이 열광하는 ‘불교와 웹툰’의 세계로 초대
- 이지윤 박사: 말랑말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 책으로 철학하기’

여기에 요즘 대세인 ‘유퀴즈’ 패러디 프로그램과 팀별 젠가 게임까지 더해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이날은 사전에 직접 봉사 교육까지 이수한 정대원원장님이 현장에 함께하며 강연자와 봉사자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는 남다른 정성을 보여주었다.

—— 로켓과 인공위성이 만난 날

8월의 또 다른 날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우주 끝까지 끌어올린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김승조 명예교수님의 귀한 특강, ‘재미있는 로켓과 인공위성 이야기’였다. 특히 남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좋아할 만한 ‘로켓 발사’와 ‘인공위성’이라는 주제 덕분인지, 아이들의 집중도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다. 단순한 과학 지식을 넘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피터 벡 같은 세계적인 우주 개척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곁들여져 흥미진진한 강연이 이어졌다. “인공위성에 탑승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같은 재치 있고 엉뚱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의 꿈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해 준 이 찬란한 우주 수업이었다.

<콩나물에 들이부은 물 같은 시간이었기를>

평범한 학교 같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을 돌아 한참 들어간 건물에 작은 법당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모시고 있고, 아기자기한 장식도 있고, 연등도 걸려있는 평범한 법당이었어요. 연등에는 소원지가 달려있었는데, 크고 서툰 글씨로 ‘나가기’라 쓴 소원지를 보니 내가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딘지 실감이 났습니다. 다른 소원지에 쓰인 ‘돈 많이 벌고 싶다’ ‘퇴원하고 싶다’는 소원보다 훨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듯한 한 마디의 울림이 컸어요.

데리고 나갈 수는 없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것도 줄 수는 있었습니다. 제게는 삼십 분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짧으면서도 재밌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아이들이 웹툰은 좋아할 것 같아서 [웹툰에서 보는 불교캐릭터-부처님과 보살님]을 준비했습니다. 고사리박사의 [극락왕생], 성코와 콩자의 [보살님이 캐리해!], 나카무라 히카루의 [세인트 영맨] 등 부처나 보살이 나오는 웹툰을 보여주면서 불교를 설명해보자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웹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미있어 할까? 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강의 내용보다는 퀴즈를 맞출 때마다 던져주었던 밤양갱 덕분이었던 것 같지만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듣는지라 아무래도 더 적극적이고 목소리가 큰 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게 많았지만, 받은 자리에서 주변 아이들과 나눠먹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밤양갱 아니라도 머릿속에 새겨진 건 있을 것 같아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뭐가 천 개일까?”에 “손이요!”는 말해도 “눈이요!”는 끝내 맞추지 못했지만 아마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을 보면 왜 눈이 천개라고 했을까 살펴볼게 되겠지요. ‘아수라’를 소개하자 “재 문신이 아수라예요!”라며 천진하게 좋아했으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수라와 아귀지옥에 대해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보살피는 눈과 손, 지옥에 떨어져도 끝끝내 놓지 않는 자비에 대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불고기피자 먹듯 게 눈 감추듯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콩나물에 들어부는 물 같은 시간이었기를.

• 박사 / 북칼럼니스트

○ 명상리더십센터, 참선마을 여름집중수행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25명의 회원은 참선 수행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신 금강스님의 화인선원을 찾아 ‘여름 집중 수행’에 참여하였다. 회원들은 참선 수행, 다도, 예불 등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는 시간을 보냈다.



9월 7일~11월 23일까지는, 백경임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총 10회기 강좌로 20명의 수강생이 함께하고 있다. 하반기 주제는 ‘경전의 새로운 활용/ 행복수행실천하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관점의 전환을 몸에 익힘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달성하고자 한다.

〈깊은 쉼과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부처님 공부의 주안점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나이 들수록 향기로운 것인가가 늘 화두였다. 소유 중심의 삶은 헛것이어서 지루했다. 늘 전전긍긍하며 불법의 쇼핑 천국에서 살다가 명상리더십센터의 여름 집중수행을 도반 20여 명과 함께하게 되었다.



각자의 승용차로 삼삼오오 도반들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아담하나 정돈된 선원에 의기투합 스며들었다. 화인선원은 경기도 안성 산골짜기에 삼태기처럼 안겨 있다. 1990년대 대효스님이 기틀을 잡아 생활참선과 마음공부로 깊은 쉼과 수행을 나누는 곳이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지 못하는 두려움, 의심 속에서 설왕설래, 스승이 장님이 아닐까. 일상이 道, 여래의 일인테 늘 망상 속에 허우적거리다 잠시 무거운 짐을 부처님께 맡기고자 하였다.

금강스님은 전라남도 해남 미황산을 선 수행지의 최고 경지로 만들어 못 중생들에게 길을 일러주신 유명한 도승이다. 우리 도반 20인은 조계종 선명상위원장이자 중



양승가대교수이고 청정수행도량 활인선원을 이끄는, 학창 시절 담임선생님 같은 금강스님의 살뜰하고 알뜰한 지도를 받았다.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은 허언이었다. 명불허전, 금강스님은 달라이라마 한국 방문을 추진하다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방문 위원장으로 정성을 다하셨고 틈나한 스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시봉하신 늘 깨어있고 진리를 향해 돌진하시는 스님이셨다. 세월은 빨리 폭포수 처럼 지나가고 마음은 다급한 즈음이었다. 그토록 모두가 열광하는 사랑을 한 적 있었나? 그에게 병어리장갑을 떠주고 싶던 그런 날이, 청춘이여! 사랑이여! 구절초, 별개미취, 쑥부쟁이, 무언가 애뜻하고 슬며시 소멸되는 두려움이 가을비처럼 추억을 재촉하는 가을이다. 이 가을 활인선원은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있어 더욱 간절한 깨우침을 주었다. 활인선원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 과거는 나를 바꾸놓지 못한다. 대상은 자신을 좌우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보고 산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금강스님께서 친필 사인해주신 무영수(無影樹), 영원의 나무를 가슴에 품었다. • 원유자 / 4차 108인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중으로 실시한 9월 임원회의에서는 추계사찰순례 일정 변경, 추석맞이 온라인 바자 실시 여부 등 하반기 활동을 논의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봉인사에서 리더십트레이닝

7월 11일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스님)에서 여성불자 108인회 주관 리더십트레이닝(LT)이 있었다.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희운 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명예교수)이 ‘AI와 리더십/새로운 길, 연결과 융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적경스님과의 차담과 토론, 저녁공양을 함께했다.

토론에서는 각 차수 임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는



후에 정대련 원장이 개발원의 현재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08인회 차수 임원들과 회원의 후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LT가 이루어졌다.



● 후원명단

• 이영주 회장: 최희운님 특강 강사료와 안나수이 티셔츠 • 이영호 센터장: 치약세트 30박스 • 정진희 부차수장(1,2,3차): 떡 • 최희영(7차): 차 • 양정희(9차) 수박 1통, 자두 1박스 • 전영숙(8차) 10만 원 • 박현주(12차) 10만 원 • 유지영(6차) 10만 원 • 김숙애(9차) 10만 원 • 황은복(11차) 10만 원 • 이란(2차) 30만 원 • 고은자(10차) 10만 원 • 박정하(10차) 10만 원 • 하수경(1차) 10만 원

●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만남의 날

-1,2,3차 108인회, 원로 선배와의 만남

김애주 고문의 “원로 108인선배님을 찾아 뵙고 환담 나누며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에 임원들 간 의논을 거쳐, 첫 모임으로 7월 2일 이인



자 초대 원장님을 모시고 점심 공양하면서, 20년 전 불교여성개발원을 창립할 당시의 에너지와 열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11차 108인회, 괴불주머니 만들고 하모니카 배우고

7월 3일 11시 개발원 마하실에서 유희순 강사의 안내로 괴불주머니 만들기에 이현숙 차수장과 회원 10명이 참석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다음 10월 말과 12월 초에 괴불주머



니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11차가 뜻을 모아 시작한 하모니카 배우기는 유화영 강사의 열정적인 교습이 소문나 다른 차수의 회원도 함께하게 되었다. 개발원의 행사나 외부 자선모임에서의 연주를 목표로 매주 수요일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12차 108인회, 홍대선원서 법회와 공양

지난 14일, 12차수 108인회 회원 13명이 홍대선원을 찾아 준한스님의 법회와 공양을 함께 하며 첫 모임을 가졌다. 작년 11월 선정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유현숙 부차수장이 준비한 정갈한 연잎밥 건강식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대련 회장도 동참해 회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차담과 싱잉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도 이어졌다. 조보경 회원은 “스님의 유쾌하고 발전적인 말씀과 건강한 점심, 싱잉볼 명상까지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자 회원은 “처음이라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금세 오래전부터 알아온 듯 편해졌다”며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회원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공양과 수행, 자비행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첫 만남은 12차수 회원들이 앞으로 이어갈 인연과 활동에 대한 기대를 더하며 마무리됐다.

○ 불교여성연구소, 번뇌의 해부에서 해독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2일(금)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간 총 6회기에 걸쳐 “번뇌의 해부에서 해독으로-휘둘리는 삶에서 마음의 주인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번뇌의 해부에서 해독으로』 프로젝트는 불교의 지혜를 중심으로 뇌과학과 철학의 통찰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는지를 이해하고, 잘못된 신념과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탐구하는 6주간의 실천 여정이다.

회수	일시	주제	강사
1강	8월 21일	삶의 기예로서의 철학	이정우 교수 - 경희사이버대 · 소운서원
2강	8월 28일	유식불교와 마음	박재용 교수 - 동국대학교
3강	9월 4일	마음공간의 계층구조와 깨달음의 길: 무명에서 지혜로, 붓다의 통찰과 뇌과학	문일수 교수 - 동국대학교
4강	9월 11일	12연기와 위빠사나	요원 법사 - 한국명상원
5강	9월 18일	부처님의 번뇌 다스리는 법 활용하기	백경임 교수 - 동국대학교
6강	10월 2일	아비담마 인식과정과 업의 형성 뇌의 예측이 만드는 현실과 감정의 과학: 분노 · 중독의 해독과 명상	김선숙 소장 - 불교여성연구소

경남 거창의 붓다선원 선원장이신 진경스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홀로 당당하게,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25권을 기증해 주셨고, 이순이 3차 108인은 이정우 교수님 강의에 떡을 후원해 주셨다.



○ 지혜아카데미, 웰다잉 강의와 가우디 전시 관람

7월 16일 지혜아카데미 제5강에서는 김애주 고문이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의 길” 주제로 강의하며, 웰다잉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학을 태동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인생수업』과 티벳 사자의 서를 함께 읽기를 추천하였다. 『티벳 사자의 서』는 송학 스님 초청 특강도 듣고, 날란다 독서모임에서도 추천도서로 함께 읽었지만, 앞으로도 반복 독서 필요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명상체험과 버킷리스트작성, “웰다잉을 위한 불교 여성개발원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이어야 할까?” 등 질문을 함께 고민하며 웰다잉과 웰빙은 동전의 앞뒤임을 확인하는 강의였다.





8월 31일에는 조동일 님(서울대 명예교수)을 초청하여 “남녀 평등과 대등, 조르즈 상드와 김삼익당 비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동서양의 두 여성 인물을 비교하며 남녀의 평등과 대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9월 지혜아카데미 강좌는 강의실을 벗어나 문화와 예술을 직접 만나는 ‘문화산책’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 기념 전시’를 찾아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와 정대련 원장을 비롯한 지혜아카데미 위원 10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하수경 지혜아카데미 위원의 설명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과 예술세계를 살펴봤다. 관람 후에는 이영미 대표가 마련한 차와 빵을 나누며 전시 소감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문화산책을 마무리했다.

○ 수익사업단

7월 21일 여름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맛간장을 선주문 받아 52병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 로즈힐 어린이집의 특별한 승마수업

개원 1년을 맞이한 로즈힐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귀여운 작은 말 ‘포니’가 어린이집으로 찾아온다. 원생들은 포니를 직접 쓰다듬고 눈을 맞추며 동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안전하게 승마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균형 감각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들이 매달 손꼽아 기다리는 로즈힐의 특별한 승마수업! 포니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감 속에서 즐거운 추억과 한 뼘 더 큰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 김선숙(5차 108인)

7월 2일 교수불자연합회 주최로 열린 세계의 명상과 한·일 불교종단의 명상수행법 프로그램에서 “번뇌의 생화학, 선(禪)으로 해독하다-수용체 중독과 예측 처리이론으로 본 선명상과 위빠사나” 주제로 발표하였다.



○ 배정화(12차 108인)

7월 1일 구미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제로타리 대회에서 제39대 신임 총재로 취임했다. 배정화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앓은 자리가 꽃자리니라”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새로운 임기의 비전을 제시했다.



○ 우순기(5차 108인)

9월 7일 진해문화원(원장 우순기)이 ‘2026 대한민국 지역문화대전-제19회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 부문에서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문화원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 발전에 공로가 큰 문화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10월 9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리는 ‘2026 지역문화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유현숙(12차 108인)

7월 23일 영덕 나옹왕사 장육사 선명상센터의 실장으로 임명되어, 선명상센터 개원식에 참가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과 12차 108인회가 축하 화분을 보냈으며, 박현주 12차 차수장이 선명상센터 개원식에 참가하여 축하하였다.

○ 우순기(5차 108인), 최해숙(4차 108인), 손은주(12차 108인)

8월 16일 경남-진해 지역 우순기, 울산광역시 지역 최해숙, 부산 지역 손은주 등 세 108인이 부산에서 만나, 불교여성개발원의 지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 부산지원

(지원장 김수현)을 확대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통합한 부(산)울(산)경(남)지원을 창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윤자현(11차 108인)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갤러리에서 열린 그룹전 <한국민화 산군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서울 인사아트갤러리에서 열린 <26' 민화 오늘의 시각과 방법 100>전에 참여, 전시하였다.



○ 위영금(12차 108인)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추석을 맞아 '탈북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추억'을 되새기는 <행복여정학 제11회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 정경연(1차 108인)

8월 6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고 석주미술상 수상작가전>을 진행하며, 개발원 임원과 회원들에게 제1회 수상작가로서의 인연과 후배 수상작가들의 전시 작품을 소개하였다. 이번 전시에 정대련원장, 김애주고문, 김선옥고문 등 많은 분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정진원(7차 108인)

7월 22일 월인천강지곡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종합토론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 컨퍼런스 중에는 세종대왕이 작사와 작곡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훈민정음 팔

만대장경 노래가 소개되기도 했다.



○ 조은수(2차 108인)

월간 「불교문화」 2026년 6월호 <신행수행 코너>에 '나의 불교 이야기'를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 최혜경(2차 108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정법신행회 대표 대자운님이 52보병여단으로부터 30여 년간 군법당 지원사업을 수행한 공로로 감사장과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사계절 눈비를 막론하고 강원도 인제 군법당을 향해 새벽길 나서 젊은 청년 군인들을 위한 어머니 마음으로 헌신하였고,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도 300명의 군인들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였다.



○ 홍원숙(8차 108인)

8월 6일 중국과 영국 합작 프로그램인 중국 장쑤(江蘇省강소) TV 다큐 《동방지혜 東方智慧 Eastern Wisdom : 세계가 중의를 만날 때 當世界遇見中醫 WORLD PRACTIC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및 독일·프랑스·몰타(Malta)·한국·말리(Mali)출신 중의원 5인 다큐 《산 너머 의사, 山外之醫, Medicine Beyond the Mountain》에 홍원숙 회원의 상하이 중의학 활동이 방영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 (2026.06.01~2026.08.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박강자(6차)	1,000,000	이현주(10차)	1,000,000	김윤숙(11차)	30,000	한주영(10차)	30,000	이미선	90,000
		박경자(5차)	1,000,000	이혜원(11차)	1,000,000	김정기(12차)	30,000	한채화(9차)	30,000	이숙자	30,000
강영자	1,2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이화선(11차)	1,000,000	김주원(12차)	20,000	한혜원(7차)	40,000	이승자	30,000
양경윤	1,200,000	박근연(1차)	1,000,000	임현주(7차)	1,000,000	김혜경(12차)	30,000	한화연(12차)	10,000	이영재	30,000
양현정	300,000	박명혜(2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김혜자(12차)	30,000	함양자(11차)	10,000	이윤구	30,000
이윤희	600,000	박정애(8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김효숙(12차)	30,000	황남채(1차)	30,000	이윤희	30,000
		박종균(6차)	1,000,000	정영수(4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이재영	30,000
		박찬재(9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이정애	3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백경임(1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이정호	30,000
		백미현(10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박경현(11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남혜경	200,000	사기순(4차)	1,000,000	정인행(11차)-1차분		박귀원(8차)	30,000			이화선	30,000
서혜선	300,000	서경애(12차)	1,000,000		500,000	박정희(6차)	30,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안기순	300,000	서현숙(7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박혜옥(11차)	30,000	여성불자08인 회비 (온라인)			
이명순	300,000	서혜경(1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공명희(11차)	120,000	장윤실	30,000
정진희	1,200,000	성민선(3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권승오(9차)	30,000	전미옥	40,000
최혜경	300,000	성수현(12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손유림(11차)	30,000	권애자(12차)	150,000	정명모	30,000
		성영란(10차)	1,000,000	조은수(2차)	1,000,000	손인애(9차)	40,000	김경희(12차)	30,000	정숙일	90,000
		손미영(7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송주의(9차)	30,000	남정숙(12차)	120,000	정원일	10,000
여성불자08인회 평생회비		손미원(9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송해진(8차)	30,000	김경희(12차)	30,000	정주현	30,000
		손인희(9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남정숙(12차)	120,000	조귀자	30,000
강미중(5차)	1,000,000	송현주(4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안인자(9차)	30,000	민경은(11차)	240,000	조여경	30,000
강설미(7차)	1,000,000	신용현(9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유자현(12차)	120,000	조우상	30,000
강영실(12차)	1,000,000	안소현(12차)	1,000,000	최봉영(12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이명남(12차)	500,000	조정숙	60,000
고은자(10차)	1,000,000	안수연(11차)	1,000,000	최수영(11차)	1,000,000	위영금(12차)	30,000	이명남(12차)	500,000	진승연	30,000
구명숙(12차)	1,000,000	안 영(10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유유희(12차)	30,000	홍경희(2차)	30,000	진여스님	120,000
권지혜(7차)	1,000,000	안애원(7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유한숙(12차)	50,000	홍의경(11차)	120,000	차원준	30,000
김경량(10차)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유화영(11차)	30,000			최순진	30,000
김귀순(7차)	1,000,000	양애자(4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회원회비 (CMS)			
김미연(10차)	1,000,000	양정희(9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윤희영(8차)	30,000	강희출	15,000	한승우	30,000
김미원(9차)	1,000,000	양채화(7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이미경(12차)	30,000	권은량	30,000	허영숙	30,000
김복순(2차)	1,000,000	여순아(9차)	1,000,000	한화연(12차)	1,000,000	이승빈(12차)	30,000	김연희	30,000	형난옥	30,000
김선옥(6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함양자(11차)	1,000,000	이영희(8차)	20,000	김영희	30,000	홍점례	15,000
김숙자(3차)	1,000,000	오세원(12차)	1,000,000	홍소진(10차)	1,000,000	이예숙(11차)	30,000	김정희	30,000	황유진	30,000
김순남(10차)	1,000,000	오응옥(3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이은경(11차)	30,000	김학엽	15,000		
김승묵(3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이종옥(조명숙)	30,000	김현숙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CMS)	
김양식(1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이진행(11차)	30,000	나경윤	15,000	강인영	30,000
김영순(3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여성불자08인회 회비 (CMS)		이혜숙(9차)	30,000	노지숙	30,000	이기향	90,000
김옥희(5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임정애(6차)	30,000	전영숙(8차)	30,000	이두영	90,000
김외숙(2차)	1,000,000	이기행(1차)	1,000,000	강순주(11차)	30,000	전영숙(8차)	30,000	정계순(12차)	30,000	최비안	90,000
김용란(11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강옥희(7차)	30,000	정승아(12차)	30,000	정윤경(12차)	20,000		
김용숙(7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정은경(12차)	30,000	정은희(6차)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김윤옥(7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정은희(6차)	30,000	정지원(7차)	30,000	박지선	30,000
김은희(4차)	1,000,000	이사구(11차)	1,000,000	계미향(8차)	40,000	정윤경(12차)	20,000	정혜정(9차)	30,000	박홍우	30,000
김일명(7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공은숙(12차)	30,000	정은경(12차)	30,000	조경숙(6차)	20,000	서혜정	30,000
김정숙(12차)	1,000,000	이영숙(12차)	1,000,000	구윤임(11차)	30,000	조경숙(6차)	20,000	조귀자(9차)	30,000	선문스님	30,000
김주현(8차)	1,000,000	이영주(7차)	320,000	권영순(11차)	30,000	조귀자(9차)	30,000	안미경	30,000	송만순	60,000
김지선(12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김득이(12차)	30,000	조민기(11차)	30,000	연석자	30,000	안지경	90,000
김지영(5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김복자(12차)	10,000	조정숙(6차)	30,000	연명순	30,000	배솔아(문윤정)	1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이은미(12차)	1,000,000	김서정(12차)	30,000	조현숙(10차)	30,000	왕민영	30,000	보우법사	1,000,000
김현지(7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김수현(11차)	30,000	주찬옥(6차)	20,000	원유자	30,000	불이회(상금)	20,000,000
김형인(9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김순자(11차)	30,000	채진영(11차)	30,000	유명숙	30,000	임지영	90,000
남상민(1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김양희(6차)	30,000	최복남(8차)	30,000	윤용옥	15,000	최윤옥(7차)	90,000
남혜경(11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김영미(6차)	20,000	최은경(12차)	60,000	이강희	15,000	최혜경	1,080,000
류인숙(5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김옥주(7차)	30,000	최희영(7차)	30,000	이고은	30,000	홍소진(10차)	90,000
리영자(1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김유경(12차)	30,000						
문명하(5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민혜성(12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40